



제주는 다이빙의 계절 14일 서귀포시 보목동 썰성 인근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들이 다이빙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풍력 이익 공유 ‘기금·주민 참여’ 분리한다

도의회 상임위 풍력발전 조례 전부개정안 수정 의결
공유화 기금·주민 참여 방식 분리해 각각 별도 규정
도 추진 추자해상풍력 적용 방식·구체적 로드맵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발전사업 허가와 풍력발전지구 지정 기준 등을 전면 손질하기 위해 추진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제주도가 향후 추자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도민사회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환)는 14일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기존 제35

조에 함께 담겼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과 주민참여 방식의 내용 조항을 신설하고 별도로 구분지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은 풍력발전사업 추진 절차와 풍력발전지구 지정·관리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부개정안 제35조에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주민참여 방식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자원인 풍력 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배당받는 주민참여 방식이 하나의 조항에 함께 담기면서 기존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이 축소

되거나 사실상 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개발이익 공유화 방식을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 은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의 질문에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은 기금대로 내고, 주민들도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주형 모델로 바뀌나가고자 한다”며 두 방식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은 주민참여 방식이 기존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사실상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일동)은 “주민참여는 돈이 있는 주민과 도민만 참여할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이익 공유화와

는 다르다”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민참여 비중을 결정할 경우 주민참여가 개발이익 공유화 사실상 점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항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은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도민을 먹여 살리는 종자돈이 될 수 있다”며 “제출된 개정안에는 이익공유 부분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개발이익 공유화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당초 제35조에 함께 담겨 있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과 주민참여 방식을 분리해 제36조를 신설하고, 각각 별도의 방식으로 규정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추석 연휴 재난·안전사고 대응 강화 도, 13개 분야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 기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재난·의료·교통 등 13개 분야 안전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중이용시설과 건설현장, 여객선 등의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연휴 기간 상황관리와 초기 대응까지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연휴 전에는 이용객이 많은 시설과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이 안전관리 상태를 살피고, 도내 건설공사 현장과 낚시어선·여객선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한다. 가축전염병 예방 등 분야별 사전 점검도 병행해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조치한다.

연휴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의료·돌봄·교통·화재 등 분야별 대응을 이어간다.

의료 분야에서는 응급진료상황실과 문 여는 병·의원 139개소, 약국 84개소, 달빛어린이병원 4개소, 공공심야약국 7개소를 운영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0 만덕콜센터에서 의료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응급의료포털과 모바일앱(e-gen, 응급톡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봄 분야에서는 생활지원사와 연계해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와 주거취약가구의 안전을 살피고 사회복지시설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교통·여객 분야에서는 특별수송대책 상황실과 해운항만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항공기 결항·지연 시 전세버스 투입 등으로 이동 불편에 대응한다.

오소봉기자

추석연휴기간 24·26일 자연장지 제례실 폐쇄

제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26일 3일간 용강별숲공원과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내 제례실을 일시 폐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을 맞아 자연장지를 찾는 추모객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추모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진입도로 혼잡 등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금탁기자

20여년 축적 제주 자연자원 연구 자료 외부 개방

제주 전역에서 20여 년간 축적한 지질·지형과 동식물, 기후·환경 등 자연자원 연구자료가 외부 연구자들에게 개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6일 한라산연구부 시청각실에서 자연자원 연구자료 공유 워크숍을 열고 그동안 축적한 자료 현황과 공개 계획을 공유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 대상

은 제주 곳곳서 조사·수집한 지질·지형과 동·식물, 기후·환경 자료를 비롯해 지리정보시스템(GIS), 드론 영상영상 등이다.

세계유산본부는 흩어진 연구조직들이 각자 쌓아온 자료를 서로 개방·연계하는 ‘분산형 연구협력체계’를 갖추는 방식으로 연구 역량을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도민 “내년 예산 투자 1순위는 환경”… 2면 / 곳간 비는 도교육청 ‘강력 구조조정’ 예고… 5면

WITH NATURE
MAKE FUTURE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자연과 함께 내일을 만드는 **JPDC**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rp.

우리가 믿는 물
“삼다수”
제주삼다수협
바로가기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CSR in the
Community
2025